

# 염불소리 그침 없으니 시간과 공간 초월한 보배궁전

## 29 새로 눈뜨는 보궁 건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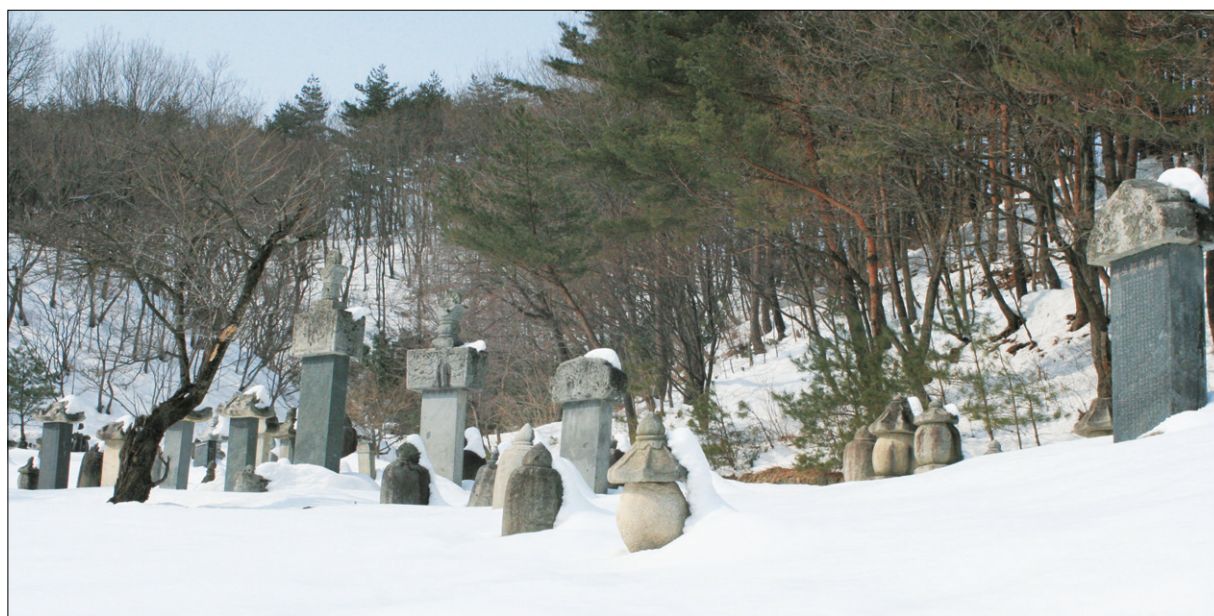
설악(雪嶽)은 눈을 덮어 쓰고서야 제 모습을 드러낸다. 유난히 눈이 많은 겨울, 설악을 넘어 금강산 건봉사(乾鳳寺) 가는 길은 설악정토(雪國淨土)로 가는 길이다. 입춘은 지났어도 동해의 시린 파도소리와 설산의 웅혼한 기상은 아직 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저 두터운 눈 속에서 봄의 전령사는 봄소식을 열심히 쓰고 있을 것이다. 어느덧 2월도 기울어 바람 끝에는 아미타불의 숨결 같은 훈훈함이 묻어 있으니 말이다.

건봉사 부도밭은 일주문에 닿기 전 오른쪽에 있습니다. 설악(雪嶽)을 두른 채 아찔한 설악을 반사시키고 있는 50여기의 부도들을 향해 반배를 올리고 절로 향합니다. 불이문을 지나 능파교를 건너 대웅전 아미타부처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적멸보궁(寂滅寶宮)을 향해 전진음을 놓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설악산 봉선암과 함백산 정암사, 사자산 범종사, 오대산 상원사, 영축산 통도사를 '5대 적멸보궁'이라 말합니다. '5대 적멸보궁'은 신라의 자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5곳의 도량입니다. 그러나 금강산 건봉사도 분명한 적멸보궁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유출됐던 통도사 진신사리의 일부를 사명대사가 되찾아 와 건봉사에 모셨으므로 건봉사 적멸보궁을 합해 '6대 적멸보궁'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장율사가 창건한 도량은 아닐지라도 부처님의 진신이 모셔져 있다면 그곳은 적멸보궁입니다.

건봉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와 '적멸보궁'입니다. 건봉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염불만일회'의 전통을 이어오는 도량입니다. 절의 기원은 신라 법흥왕 7년(520) 아도화상이 원각사란 이름으로 개창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라의 불교 공인이나 아도화상의 생몰연대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설(說)은 신빙성이 약합니다. 때문에 기록에 의한 정확한 연원은 경덕왕 17년(758) 발징화상(發徵和尚)이 원각사를 중건하고 염불만일회를 개설했다는 <삼국유사>의 기사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염불만일회란 말 그대로 1만 일, 즉 27년 5개월 동안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불국정토 실현과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하나의 결사(結社)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발징화상은 정신(貞信) 양순(良順) 등 제자 31명과 함께 염불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원력에는 당시의 불자 1820명이 자발발심(自願發心)하여 동참 했는데, 그 중 120명은 스님들의 의복을 시주하고 나머지는 음식을 공양했다고 합니다. 만일 동안의 염불 기도를 발원한 스님들은 오로지 염불 수행에 전념하고 불자들은 각자의 소임대로 그 원력봉사를 후원한 것입니다.



건봉사 부도밭의 설경.



건봉사 적멸보궁 뒤뜰의 세존영아탑이 눈에 몸을 묻고 있다.

극락정토(極樂淨土)의 교주이신 아미타불을 염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한 순간도 끊이지 않고 그 장엄한 기도를 후원하는 불자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을 당시의 건봉사를 생각하면 진짜 수행이 어떤 것인지 진짜 공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토를 꿈꾸는 중생의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도 사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토(儼土) 더러운 곳에 사는 중생이 정토를 꿈꾸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생각하고 집 나가 '개고생' 하는 사람이 포근한 집을 그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토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그곳이 정토라 합니다. 만일 동안의 염불은 바로 만일 동안의 심청정(心淸淨)으로 정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원력인 것입니다.

기록은 발징화상과 함께 염불 기도를 한 스님들 31명이 원성왕 3년(787)에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 육신 그대로 하늘을 날아(肉身騰空) 극락세계에 왕생했다고 합니다. 그 때 스님들의 몸이 1.5Km나 하늘로 솟았다가 육신은 땅에 떨어지고 정신은 정토로 왕생했다는 곳을 '등공담'라 하는데 그 터에 '등공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봉사 염불만일회의 전통은 전년이 지나 다시 이어졌습니다. 순조 2년(1802) 용허 스님이 옛 전통을 이어 제2회 염불만일회를 설치하여 1832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철종 2년(1851)에 벽오유종 스님이 제3회 염불만일회를 개설했으나 12년 후 철종의 승하로 회향되었고, 1908년 제4회 염불만일회가 회향되며 다시 제5회 염불만일회가 개설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리고 1998년 다시 그 전통을 이어 염불만일회가 결성되어 건봉사는 물론 전국의 도

량을 순회하며 결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나와 능파교를 건너면 옛 건봉사 앞에 '나무아미타불'이란 글씨가 뚜렷하게 새겨진 돌기둥이 있어 이곳이 염불도량의 시원임을 알려줍니다.

건봉사 적멸보궁은 작은 영지(影池)를 지나 나서 암 구벽 위쪽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답게 고요하고 엄숙합니다. 보궁이라 불상은 모시지 않은 법당과 그 회랑채들이 두터운 눈을 덮고 있습니다. '적멸보궁'이라는 편액이 달린 법당 안에는 절을 하는 불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흥기가

운 부도가 보궁의 상징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건봉사에 새로운 힘을 부여한 사명대사는 조동화생도 그 전기를 필독서로 꼽는 국난극복의 상징입니다. 건봉사에는 '사명대사기적비'가 있습니다. 눈 속의 부도밭 어디엔가 있을 것이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사명대사의 비는 대사가 입적한 해인사 흥제암과 고향인 경남 밀양의 무안리 등에 있습니다. 흥제암과 밀양의 비는 모두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린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합천 경찰서장이 국혼(國魂)을 파괴하려는 상징으로 네 동강 내었던 흥제암의 비는 절착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명대사기적비'는 정조 23년(1799) 강원도 순찰사 남공철이 원력을 세워 그 이듬해에 건립했습니다. 유학을 사회 이념과 선비의 좌표로 여기던 시절, 강원도 순찰사인 남공철이 직접 비문을 찬했습니다. 내용은 왜란을 맞아 승군을 일으켜 구국의 깃발을 들었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업적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유학의 이념으로 시대의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을 두 스님이 이루어 낸 데 대한 칭송도 짚어 마를 지경입니다. 그러면서도 유학과 불교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점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지적하고 또 지적합니다. 한 대목을 봅시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나라에 세운 공로를 유교의 군신유의(君臣有義)와 부자유친(父子有親)에 비교해 보면 어떠한 하겠는가? 저들이 유관(儒冠)을 쓰고 유의(儒衣)를 입고 깊이 성리학을 연구하여 고상하게 인의의 도리를 설명하더라도 이는 그 알맹이가

없는 것이므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름은 불교이나 유교의 행을 하는 자는 곧 우리의 유교이고, 이름은 유교이지만 불교의 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단일 뿐이다."(<교감 역주 역대고승비문> 이지만,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그리고 또 하나,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화친을 위한 강화사로 가게 된 배경을 일본이 불교를 숭상하므로 승려가 가면 대화가 잘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물론 당시 조정이나 사회 분위기가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이유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좀 편향적인 것입니다.

사명대사는 이미 전쟁 와중에 왜군의 수장들과 여러 차례 담판을 지어 많은 공적을 세웠던 절과 당시 국민적 존경을 받았던 절 등이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밝히지 않은 것이 '유학이념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의 자존심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분계선 안에 위치해 반세기 가까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1992년부터 출입이 자유로워진 건봉사, 또 하나의 적멸보궁으로 새롭게 눈뜨고 있는 건봉사의 부도밭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키가 크지 않은 탓에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을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에서 부도밭까지 50여 미터를 가니 기진맥진입니다. 50여기의 부도와 10기가 넘는 비들이 양지 바른 곳에서 품통을 눈에 묻은 채, 눈만 빼꼼 내 놓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를 조용히 내려다봅니다. 다음에 다시 와서 비와 부도들을 좀 더 가까이서 찬찬히 살펴봐야겠다고 다짐 하는 기자의 귀에 아미타불을 부르는 염불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 부도밭에서만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건봉사 도량 어느 곳에선들 염불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을 뿐.

임연태 (시인·본지는설위원)

## 사명대사 일본서 되찾아 온 부처님 진신사리 모셔 신라 때부터 '염불만일회' 전통 잇는 적멸의 도량

가득합니다. 법당을 나와 뒤로 돌아가니 오른쪽에 세존영아탑(世尊靈牙塔)이 가슴만 드러낸 채 눈에 묻혀 있습니다.

보궁의 뒤뜰은 바로 이 영아탑의 영역입니다. 사명대사(四溟大師, 1544~1610) 유정(維政) 스님이 선조 38년(1605)에 일본에서 되찾아 온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경종 4년(1724)에 탑을 세워 봉안한 것입니다. 이 영아탑이 여기에 있음으로 건봉사는 적멸보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후 조선의 4대 사찰로 사격을 신장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영아탑 곁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두 기의 부도가 있고 내력이 불분명한 비석도 하나 서 있습니다. 근래 들어 보궁 뒤뜰 가운데 석종형의 새로운 부도를 모셨는데, 영아탑의 내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새로

##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3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3월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